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최 해 립†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현장에서 상담하는 상담심리사 수준 이상의 상담자 205명을 대상으로 한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조사이다.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연구 1은 한국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40문항을 통하여 문항별로 4개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게 하는 중복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연구 2는 상담실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25개의 상황을 제시,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는 연구 1에서 각 문항마다 10%이상의 응답을 서술적으로 제시하고 상담자의 성별, 연령, 학위, 자격증, 상담경험, 수퍼비전 받은 경험, 수퍼비전 해 준 경험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2에서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선택의 백분율을 제시하고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학회의 윤리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각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의 가치, 태도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상담전문가, 상담경험이 많은 이들의 응답을 참고로 윤리지침의 토대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담이 전문분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윤리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주요어 : 상담윤리, 상담태도, 한국상담자

최해립은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최 해 립, (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2동,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전화 : 02)705-8939 E-mail : hrchoi@sogang.ac.kr

최근 상담에 대한 요구의 급증과 지대한 관심은 상담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담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된다.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상담은 전문직으로 존중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Vacc와 Chorkay(1999)는 1) 개인 실무자들이 그 분야에 개별적으로 입문하고 2) 전문가 조직이 형성되고 3)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이 발달하고 4)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인준의 발달이 일어나고 5) 외부기관에서 대학원 졸업 후 자격 부여가 이루어지며 6) 전문직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성 과정이 확립되어 가는 6단계 과정에서 전문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도움을 주는 전문인들이 많은데,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 경우만 보더라도 2002년 4월 현재 총 회원 3133명, 정회원 576명, 이 중 상담심리 전문가 193명, 상담 심리사 595명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전문가 조직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즈음에 또한 상담 전문직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상담전문직의 발달을 도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책무성(accountability)은 그 전문적 구성원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 즉 유능한 상담자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전문가 집단의 윤리성과도 직결된다. 김계현(1999)은 상담전문가가 구비해야 하는 기준으로,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였다는 증거, 내담자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적절한 인격과 가치관,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담에 관한 지식이나 진단/평가 같은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서부

터 시작되겠지만,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상담자 자신이 상담의 도구이기 때문에 상담자 개인의 인격과 철학, 가치관 태도, 윤리성은 특별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상담에서 윤리문제

상담에서 윤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실제에서의 구체적인 윤리적 선택 및 결정이다. 상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는 자격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윤리적 선택 및 결정은 특히 쟁점의 여지가 많다.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상담분야와 한국 상담분야에 대하여 간단히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변호사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미국사회를 반영하듯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지난 30여년간 여러 관련 학회에서 상담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APA(미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 윤리강령(APA, 1992)의 윤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원칙으로 원칙A) 전문능력, 원칙B) 진실성, 원칙C) 전문적 및 과학적 책임, 원칙D) 개인의 권리와 품위의 존중, 원칙E) 타인복지에 대한 관심, 원칙F) 사회적 책임을 들고 있으며, 윤리기준으로 1) 일반적 기준, 2) 평가, 사정, 개입, 3) 광고 및 기타 공적 진술, 4) 치

료, 5) 사생활 및 비밀보호, 6) 교수, 수련 감독 연구, 출판, 7) 법정 관련 행위, 8)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지침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30여 pages에 달하는 문건으로 모든 심리학자가 전문인으로서 따라야 할 윤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PA는 1996년 거의 40 pages에 달하는 윤리위원회의 법칙과 과정(Rules and Procedures)을 발표하여 유사시 해결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ACA(미국상담학회)에서도 윤리강령 및 상담규준(ACA, 1996)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담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A 상담관계, B 비밀보장 C 전문적 책임, D 타 전문인과의 관계 E 평가 진단과 해석, F 교수(teaching), 훈련과 슈퍼비전 G 연구와 출판, H 윤리적 문제의 해결로 20여 pages에 달한다. 최근 On-line Counseling에 대한 윤리적 기준(ACA, 1999)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리문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은 대단히 많고 또 본 논문의 주제 밖이라 여기서 소개할 수 없지만 윤리문제영역, 윤리적 제재,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예를 한가지씩 들어보겠다.

Corey(1991)가 인용한 Pope, Tabachnick와 Keith-Spiegel(1988)의 연구에 의하면 반응자의 80%가 성 관련 행동(내담자와의 성 접촉, 내담자와 성적 행동, 내담자 앞에서 옷을 벗음, 내담자에게 옷을 벗게 함), 직무관련 활동(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한 대가로 돈 받기, 내담자와 다른 사업을 함, 내담자로부터 돈을 빌림), 비밀누설 관련 행동(부주의하게 비밀을 누설함, 내담자에 대해 친구와 의논함),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서비스 관련행동을 나쁜 상담으로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상담활동에는 이중관계 즉 상담관계에서의 적절한 경계의 파괴(이전 내담자와의 성 관계, 친구를 상담, 내담자를 파티에 초대, 내담자

가 되어 달라고 부탁) 등이다.

Neukrug, Healy와 Herlihy(1992)는 ACA(American Counselor Association) 산하 주(state) 자격관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complaints) 1143개 중 가장 많은 사건은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은 의심이 가는 상담자(27%), 내담자와 성 관계(20%), 부적절한 상담료/가짜 보험료 징수(12%), 이중관계(7%), 내담자에게 정보제공을 잘 못해줌(7%)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1143사건 중 66%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34%는 윤리적 제재를 하였는데 이 중 34%가 자격정지를 당하였고 11%는 훈방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Heppner 등(1992)은 상담심리에서 과학자 실무자 모델 제시를 하며 윤리, 사회,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전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 훈련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미국 대학원 학생들은 필수과목으로 윤리 관련 과목을 꼽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erusse, Goodnough, & Noel, 2001).

한국의 경우

최근 상담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상담직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많아지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기도 하고 보고받기도 하며, 또한 소문도 들리기 시작한다. 본 연구에 참가한 205명의 상담자 가운데서도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 상담자가 119명(58%)이었고 윤리적 문제를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 상담자가 101명(49.3%)이나 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윤리적 갈등을 접할 때마다 이를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례를 모아왔는데, 최근 부각된 몇몇 경우와 함께 상담교육과 실제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담에서 윤리문제가 한 두건 표면화된 것으로 보아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안심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은 의학 분야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잘못된 의료 행위에 대한 소송(malpractice suit)이 빈번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의료사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인간관계로 얽힌 사회로, 인간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는 풍토가 강하며, 또 모든 것을 운명,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으로, 의료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담분야에서 윤리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전문 상담자들의 가장 큰 조직인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에 윤리강령/지침이 없으며 윤리위원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윤리 및 상벌 위원회에서 심리학자의 윤리강령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윤리강령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이것조차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로(이형득, 1994, 92쪽)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은 1963년에 한국 카운슬러협회가 창립되고 나서 14년이 지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977년에 가야 한국 카운슬러협회 산하에 연구담당 소위원회에서 윤리요강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제정하였다. 그 후에 1980년 제 15차 한국 카운슬러 연차대회에서 한국 카운슬러 윤리요강으로 공포하였다. 1980년 공포된 후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 카운슬러 윤리요강은 급성장하는 전문 상담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기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상담자 윤리에 관한 연구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상담분야 서적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윤리에 관한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담교과서에서도 윤리문제가 소홀히 다루집을 볼 수 있다. 이상로(이형득, 1994)가 김은희(1991)의 윤리결정 모형을 보고하였고, 이장호(1999)는 상담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2001)는 집단상담에 관한 윤리문제를 8페이지 다루고 있다. 번역서인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Corey, 1991 /1995)에서는 1장 정도 윤리문제를 다루어 미국의 상담분야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관심사인지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실제 상담 전공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윤리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5명의 상담자 가운데 13명이 전적으로 상담윤리를 다루는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교과내용 가운데서 윤리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수강 선택한 적이 있는 상담자는 88명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10시간 이내의 강의나 4시간 이하의 worksho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귀하가 상담하면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갈등이나 문제였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가치관 (23명) : 기관의 목적과 불일치,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겪는 시각차, 낙태, 이혼 문제 개입시, 운동권학생 내담자를 수용

해야 하는 경우

비밀보장 (77명) :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에 대한 의무감과 비밀보장 사이의 갈등, 기관의 요구와 상담비밀 보장간의 갈등, 내담자가 심각한 법 위반을 했을 때, 내담자의 사적비밀을 강의 등에서 인용할 때

성적관계 (11명) : 내담자와 불륜관계, 성적 접촉

사적관계 (11명) : 상담관계와 사적인 사제관계의 갈등, 상담비보다 비싼 선물, 종결 후 내담자와의 사적인 관계 지속 여부

상담료 (6명) : 무료상담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할 때 기준이 갈등, 유료상담소에서 기대한 기한 내에 상담이 종결되지 않아 내담자가 상담비 문제로 어려워 할 때

상담자의 자격 문제 (19명) :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담자인가, 충분한 수퍼비전을 받지 않은 채로 상담이 진행될 때 무책임하다는 생각

그 외 문제 (10명)

또한 주위에서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 혹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에 대해서 가치관(10명), 비밀보장(25명), 사적인 관계(13명), 상담료(5명), 성적관계(29명), 이중관계(3명), 상담자의 자격문제(15명), 그 외(11명)로 응답하였다.

위의 응답에서 횡수보다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고도의 윤리적 민감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체에 무심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과 구체적 문제에서 상담자 자신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상담자들의 결정에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윤리적 지침

을 학회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구체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 소속의 상담심리전문가와 서울시내 대학생상담소 및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하여 접촉이 가능한 상담심리사 수준 이상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300매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05매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한 상담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는 205명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명으로 전체의 16.1%였고, 여자는 172명으로 83.9%였다. 나이에 따라서는 30대가 102명(19.8%)으로 가장 많았다. 87명(42.4%)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79명(38.5%)이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상담 경험은 4-9년이 82명(40%)로 가장 많았고,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은 40회 이상이 75명(36.6%), 수퍼비전을 실시한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85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연구 1의 질문지는 Corey, Corey와 Callanan(1998)의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에서 자기점검 질문지 (Self-Assessment: An Introductory

표 1. 연구 대상자

		빈도	%	유효%	누적%
성별	남자	33	16.1	16.1	16.1
	여자	172	83.9	83.9	100.0
나이	20대	42	20.5	20.7	20.7
	30대	102	49.8	50.2	70.9
	40대	41	20.0	20.2	91.1
	50세 이상	18	8.8	8.9	100.0
	무응답	2	1.0		
학위	석사과정	17	8.3	8.3	8.3
	석사	72	35.1	35.3	43.6
	박사과정	68	33.2	33.3	77.0
	박사	47	22.9	23.0	100.0
	무응답	1	.5		
자격증	상담심리사	87	42.4	49.7	49.7
	상담심리전문가	79	38.5	45.1	94.9
	그외	9	4.4	5.1	100.0
	무응답	30	14.6		
상담경험	3년이하	60	29.3	29.9	29.9
	4년-9년	82	40.0	40.8	70.6
	10년 이상	59	28.8	29.4	100.0
	무응답	4	2.0		
수퍼비전 받은 경험	10회 이하	51	24.9	26.2	26.2
	11회-40회	69	33.7	35.4	61.5
	40회 이상	75	36.6	38.5	100.0
	무응답	10	4.9		
수퍼비전 실시 경험	없음	85	41.5	47.0	47.0
	20회 이하	45	22.0	24.9	71.8
	21회 이상	51	24.9	28.2	100.0
	무응답	24	11.7		
전체		205	100.0		

of Your Attitudes and Beliefs about Professional Ethical Issues)에서 50문항, 그리고 Herlihy와 Corey(1996)의 ACA Ethical Standards Casebook에서 An Inventory of Your Attitudes and Beliefs about Ethical Issues

의 30문항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초안)과 비교하여 40문항을 선정하였다. 5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문항들의 표현이 적절한가 검토하였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

한다.

연구 2의 질문지는 상담자의 윤리적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Jack Zibert와 동료들이 사용한 25개의 질문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의 질문지는 ACA Ethical Standards Casebook(Herlihy & Corey, 1996)의 사례에 근거한 것인데 연구자는 2000년 10월 Dr. Zibert로부터 그들이 사용한 질문지를 한국판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실제로 문항들이 한국문화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그 25개 문항의 취지를 살리면서 연구자가 그 동안 모아온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둘은 Category상 일치점이 매우 높다. 각 문항은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표한다.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 1

상담에 대한 신념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4개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다 선택하게 하는 중복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제시된 4개의 답 외의 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에서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 상담자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었다. 표 2는 응답자의 10% 이상이 check한 문항들이다.

표 2에서 응답한 빈도수와 %를 통하여 한국의 상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상담자들의 성별, 연령, 학위, 자격증, 상담 경험, 슈퍼비전 받은 경험, 슈퍼비전 해 준 경험

에 따라 각 문항에서 어떤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았으나 여기서 전부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성별차이와 함께 40대 이상, 박사학위 소유자, 상담심리 전문가, 상담경험 10년 이상, 슈퍼비전 받은 경험이 40회 이상, 그리고 슈퍼비전 실시 경험이 21회 이상인 상담자가 다른 상담자와 다른 반응을 제시하였다.

이 범주에 속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한국 상담계를 이끌고 나가는 인물들이라고 생각되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문장 앞의 (5-3)은 질문지의 문항과 응답 번호이며 문장 뒤의 (69.7 / 48.8%)는 비교 집단의 상담자가 응답한 백분율을 나타내며 여기서 빈도가 높다고 한 것은 χ^2 검증에서 $p < .01$ 인 경우만을 택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비교

남자 상담자가 여자 상담자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5-3) 내가 상담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69.7 / 48.8%)
- (25-1) 슈퍼바이저가 과거에 피훈련자였던 학생과 성적 관계를 시도하였다. 그 학생과는 더 이상 어떤 전문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비윤리적이다. 그 슈퍼바이저는 자기 지위를 과거 학생과 접촉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60.6 / 38.4%)

여자 상담자가 남자 상담자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5-4) 내가 상담 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상담 일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개인적 성장이다 (53.5 / 33.3%)

표 2. 상담관련 주제에 대한 신념, 태도 가치

문	항	빈도	%
1.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은			
- 상담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179	87.3
-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22	10.7
2.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을 상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 내가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이고 나의 삶과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이다.		194	94.6
- 내가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이다.		39	19.0
3.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상담자는			
-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영역에서 개인적 갈등이 없어야 한다.		114	55.6
-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과 흡사한 감정을 경험해야 한다.		58	28.3
-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야 한다.		23	11.2
4.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 윤리나 상담 실재에서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말		179	87.3
- 상담자가 사용하는 기술에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		37	18.0
- 분명히 정의된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말		23	11.2
5. 내가 상담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107	52.2
- 상담 일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개인적 성장이다.		103	50.2
- 이 직업에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22	10.7
6. 내담자가 나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거나 아주 싫어한다는 근거가 있을 때			
- 수퍼바이저나 동료 상담자와 이야기 할 것이다.		104	50.7
- 내담자와 이 감정에 대해 말할 것이다.		98	47.8
- 상담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할 것이다.		97	47.3
7. 내담자에게 자기 개방은 상담자로서			
- 가능한 한 피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해야 한다.		114	55.3
- 상담면담 중에 내담자에게 어떠한 느낌을 갖는지 상담자가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94	45.9
8.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교육상담/분석은			
-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85	41.5
- 바람직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72	35.1
9. 상담자의 개인 문제나 갈등이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상담자는			
-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들과 의논하는 것이 상례이다.		165	80.5
- 이 내담자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유보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64	31.2
10. 나와 지역,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문화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할 때			
- 그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상담한다.		146	71.2
- 그 내담자에 영향을 준 정치, 사회, 문화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탐색		95	46.3
전체		205	100

표 2. 계속

문	항	빈도	%
11. 내가 동성연애자인 내담자를 상담하게 된다면 내가 주로 염려하는 것은	- 이런 삶의 양식에 대해 내가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80	39.1
	- 나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것이다	76	37.1
	-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이다.	73	35.6
12.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자살) 결정을 할 때	- 내담자의 심리적,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107	52.2
	- 성직자나 의사를 보도록 제안한다.	33	16.1
	- 내 생각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 따르도록 말한다	30	14.6
13.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게 될 때는	- 나의 욕구와 문제가 내담자를 돕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볼 때	145	70.7
	- 내담자가 내 놓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을 때	47	22.9
	- 내담자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 않을 때	36	17.6
	- 내담자가 아주 싫을 때	33	16.1
14. 내담자의 문제가 나의 가치관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한다.	108	52.7
	- 다양성에 대하여 더 인내심을 갖는다는 도전 때문에 내담자를 받아들인다.	85	41.5
	- 애초에 갈등이 되는 가치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내담자에게 말한다.	42	20.5
15. 상담료를 지불할 수 없어 상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는	- 내담자가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료를 내린다	132	64.4
	-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지역사회 상담소를 소개해 준다	81	39.5
	- 내담자가 능력이 될 때까지 무료로 상담한다	24	11.7
16. 상담료 대신 바터제(비금전적 보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 분명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109	53.2
	- 부당하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닐 때	49	23.9
	- 상담자가 바터제를 하면서 편안할 때	34	16.6
	- 내담자 요구가 있을 때	23	11.2
17.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선물을	- 액수에 관계없이 부담스러우면 받으면 안 된다	106	51.7
	-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다.	77	37.6
	- 상담 도중이면 안 되지만 종결 후에는 받을 수 있다	44	21.5
18. 내담자를 구하는데 있어 상담자는	- 내담자 의뢰에 대한 소개료는 받지 않는다	187	91.2
19. 내담자의 상담 동의를 얻는 것은 윤리적으로 필수다.	- 모든 내담자에게	119	58.0
	- 내담자가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7	37.6
20. 친구가 상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 친구를 내담자로 받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139	67.8
	-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적절한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다	47	22.9
	- 우정이 상담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만 예외적으로	34	16.6
	- 우정과 상담을 섞으면 안 된다.	23	11.2
전체		205	100

표 2. 계속

문	항	빈도	%
21.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 내담자 자신과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거라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186	90.7
- 내담자의 허락을 글로 받았을 때		72	35.1
- 내담자가 법을 어겼을 때 관련 상담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32	15.6
22. 과거 내담자였던 사람과 상담자 간의 성적 관계는			
-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건 상관없이 비윤리적이다		108	52.7
-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 문제를 토론하고 관계에 대해 동의하면 윤리적		52	25.4
- 상담 종결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윤리적이다.		36	17.6
23. 현재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173	84.4
- 내담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한 심각한 경우다		64	31.2
24. 내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 상담자가 진심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만 만질 수 있다.		120	58.5
- 내담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78	38.0
- 상담과정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21	10.2
25. 슈퍼바이저가 과거에 피훈련자였던 학생과 성적 관계를 시도하였다. 그 학생과는 더 이상 어떤 전문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런 행동은 나에게서는			
- 비윤리적이다 그 슈퍼바이저는 자기 지위를 과거 학생과 접촉하는데 사용		86	42.0
- 비윤리적은 아니지만 현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		84	41.0
- 슈퍼비전 관계는 상담 관계와 흡사하므로 비윤리적이다.		35	17.1
26. 내담자 대학원생, 수련생들과의 이중관계에서			
- 위험부담과 유익성을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90	43.9
-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73	35.6
- 일반적으로 비윤리적, 불법적, 비전문가적이다.		24	11.7
27. 영성적 종교적 가치와 관련하여 상담자로서 나는			
- 내담자가 먼저 토론하자고 하지 않는 한 그 주제를 피한다.		121	59.0
-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의 영적 종교적 신앙에 대한 평가진단을 할 것이다		31	15.1
- 나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있어 그런 가치는 무시할 것이다		30	14.6
28. 부부 및 가족치료에서 내 생각에 상담자는			
-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한 단위로서 가족의 안녕이다		97	47.3
- 가족의 요구에 관심을 갖되 어느 한 구성원이라도 최소한 희생하게 한다		69	33.7
- 가족 각 구성원의 요구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3	25.9
29. 전화상담에서 상담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면			
- 많은 경우 전화상담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아니다.		102	49.8
- 내담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92	44.9
30. 면담기록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 내담자에게 절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다.		153	74.6
- 제3자에게 기록을 보내거나 공개해야 할 때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4	70.2
- 불필요한 기록일지라도 보관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39	19.0
- 법적 윤리적으로 10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1	10.2
전체		205	100

표 2. 계속

문	항	빈도	%
31. 상담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내 생각에	- 검사는 상담에 보조물로 사용하면 가치있는 도구일 수 있다.	178	86.8
	- 검사는 상담에서 유용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63	30.7
	- 검사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이다	28	13.7
32. 집단상담과 관련하여 심리적 위험부담에 대한 나의 입장은	- 집단원에게 초기에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34	65.4
	- 앞으로 집단원이 될 사람들을 면담에서 세심하게 거르면 된다.	63	30.7
	-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62	30.2
33. 지역사회에 대한 상담자의 책임에 관하여	- 상담자는 심리적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해야한다	134	65.4
	- 상담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102	49.8
	- 상담자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내담자가 사용하도록 돕는 정도면 됨.	39	19.0
34.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과 나의 철학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나는	- 그 위치에서 윤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181	88.3
	- 그 시설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다.	39	19.0
35. 내담자가 연구대상일 때 윤리적인 것은 상담자가	- 내담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고 동의를 구한다	153	74.6
	-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94	45.9
	- 내담자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34	16.6
36.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자는	- 사이버 상담이 면담과 다른 제한점, 위험 부담이 있음을 알려준다.	174	84.9
	- 내담자에게 사이버 상담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8	23.4
	- 어떤 수준 이상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이 가능하다.	40	19.5
37. 인터넷으로 슈퍼바이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 다른 곳에서 슈퍼비전을 받겠다	124	60.5
	- 슈퍼바이저에게 말하겠다.	85	41.5
	- 내가 일하는 기관에 보고할 것이다.	29	14.1
38. 윤리적 상담자라 함은 주로	- 나의 치료개입이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심함을 의미한다.	165	80.5
	- 전문가의 윤리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	68	33.2
	-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따라 행동함을 의미한다	33	16.1
39. 윤리와 법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상담상황에 직면한다면	- 변호사와 즉시 의논한다.	76	37.1
	- 법에 도전하더라도 윤리적이라고 믿으면 밀고 나간다.	52	25.4
	- 다른 치료자에게 내담자를 의뢰한다.	30	14.6
40.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단계는	-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	84	41.0
	-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한다.	77	37.6
	- 이 상담자의 내담자를 만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본다	30	14.6
	전체	205	100

- (9-4) 상담자의 개인 문제나 갈등이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상담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들과 의논하는 것이 상례이다 (83.1 / 66.7%)
- (16-4) 상담료 대신 바터제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분명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56.4 / 36.4%)

나이에 따른 비교

- 40대 이상의 상담자가 2,30대 상담자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40-3)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 사항을 보고한다 (57.6 / 26.2 / 30.4 %)
 - (33-4) 지역사회에 대한 상담자의 책임에 관하여 상담자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내담자가 사용하도록 돕는 정도면 된다 (33.9 / 14.3 / 11.8%)

학위에 따른 비교

-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자가 박사 과정 중 혹은 석사 학위를 가진 상담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3)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23.4 / 7.4 / 6.7%)
 - (2-3)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을 상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이 설 때이다 (34.0 / 20.6 / 10.1%)
 - (9-2) 상담자의 개인 문제나 갈등이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를 제한하거나 유보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6.8 / 27.9 / 24.7%)
 - (10-2) 나와 지역,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문화

-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나는 그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상담한다 (85.1 / 61.8 / 70.8%)
 - (12-3)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결정을 할 때 성직자나 의사를 보도록 제안한다 (29.8 / 14.7 / 10.1%)
 - (13-1)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게 될 때는 내담자가 아주 싫을 때 (29.8 / 14.7 / 10.1%)
 - (18-3) 내담자를 구하는 데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뢰에 대한 소개료는 받지 않는다 (100 / 92.6 / 85.4%)
 - (25-1) 슈퍼바이저가 과거에 피훈련자였던 학생과 성적 관계를 시도하였다. 그 학생과는 더 이상 어떤 전문적 책임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런 행동이 나에게서는 비윤리적이다. 그 슈퍼바이저는 자기 지위를 과거 학생과 접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55.3 / 50.0 / 29.2%)
 - (38-3) 윤리적 상담자라 함은 주로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 (51.1 / 33.8 / 23.6%)
 - (40-3)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한다 (55.3 / 35.3 / 29.2%)
- 박사 학위를 받은 상담자가 박사과정 중 혹은 석사학위를 가진 상담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낮은 문항**
- (29-4) 전화상담에서 상담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면 많은 경우 전화상담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아니다 (31.9 / 54.4 / 56.2%)

자격증에 따른 비교

상담심리전문가가 상담심리사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3)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20.3 / 3.4%)
- (10-2) 나와 지역,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문화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나는 그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상담한다 (84.8 / 69.0%)
- (12-3)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결정을 할 때 성직자나 의사를 보도록 제안한다 (21.5 / 9.2%)
- (14-2) 내담자의 문제가 나의 가치관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애초에 갈등이 되는 가치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내담자에게 말한다 (29.1 / 16.1%)
- (16-1) 상담료 대신 바터제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닐 때 (30.4 / 17.2%)
- (28-2)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한 단위로서 가족의 안녕이다 (35.4 / 18.4%)
- (30-3) 면담 기록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법적 윤리적으로 10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6.5 / 5.7%)
- (32-1) 집단 상담과 관련하여 심리적 위험 부담에 대한 나의 입장은 집단원에게 초기에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72.2 / 57.5%)
- (35-1) 내담자가 연구대상일 때 윤리적인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25.3 / 12.6%)
- (36-2) 사이버 상담에서 상담자는 사이버 상담이 면대면 상담과 다른 제한점, 위험 부담이 있음을 알려 준다 (93.7 / 81.6%)
- (37-4) 인터넷으로서 슈퍼바이저가 부적절하다고 생

각하면 내가 일하는 기관에 보고할 것이다 (24.1 / 8.0%)

- (38-3) 윤리적 상담자라 함은 주로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 (43.3 / 28.7%)
- (40-3)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 한다 (53.2 / 24.1%)

상담경험에 따른 비교

상담경험이 10년 이상인 상담자가 경험이 4-9년 혹은 3년 이하인 상담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3)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18.6 / 11.0 / 3.3%)
- (3-1)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상담자는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야 한다 (18.6 / 12.2 / 3.3%)
- (5-3) 내가 상담 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진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62.7 / 54.9 / 40%)
- (7-3) 내담자에게 자기 개방은 상담자로서 가능한 한 피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해야 한다 (71.2 / 51.2 / 48.3%)
- (11-2) 내가 동성연애자인 내담자를 상담하게 된다면 내가 주로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삶의 양식에 대해 내가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50.8 / 23.2 / 23.3%)
- (12-4)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결정을 할 때, 내담자의 심리적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 보도록 한다 (66.1 / 42.7 / 53.3%)

- (18-3) 내담자를 구하는 데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 의뢰에 대한 소개료는 받지 않는다 (98.3 / 90.2 / 85.0 %)
- (25-1) 슈퍼바이저가 과거에 피훈련자였던 학생과 성적 관계를 시도하였다. 그 학생과는 더 이상 어떤 전문적 책임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런 행동이 나에게서 비윤리적이다. 그 슈퍼바이저는 자기 지위를 과거 학생과 접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52.5 / 43.9 / 26.7%)
- (28-2) 부부 및 가족치료에서 내 생각에 상담자는 가족 각 구성원의 요구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7.3 / 26.8 / 13.3%)
- (33-4) 지역사회에 대한 상담자의 책임에 관하여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상담의 고유범위 밖이다
- (35-1) 내담자가 연구 대상일 때 윤리적인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22.0 / 20.7 / 6.7%)
- (37-4) 인턴으로 슈퍼바이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하는 기관에 보고 할 것이다 (23.7 / 14.6 / 3.3%)
- (38-3) 윤리적 상담이라 함은 주로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 (52.5 / 28.0 / 23.3%)
- (40-3)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한다 (52.5 / 32.9 / 28.3%)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에 따른 비교

-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40회 이상인 상담자가 11-40회 혹은 10회 이하 받은 상담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3)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 교육을 맡고

-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 (16.0 / 2.9 / 7.8%)
- (5-3) 내가 상담 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62.7 / 42.0 / 54.9%)
- (34-2)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과 나의 철학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나는 그 시설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겠다 (24.0 / 20.3 / 5.9%)
- (40-3)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한다 (52.0 / 26.1 / 29.4%)

수퍼비전을 실시한 경험에 따른 비교

- 수퍼비전을 21회 이상 실시한 상담자가 20회 이하 혹은 전혀 없는 상담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2)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98.0 / 84.4 / 84.7%)
 - (2-3)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을 상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이 설 때이다 (29.4 / 6.7 / 16.5%)
 - (11-1) 내가 동성연애자인 내담자를 상담하게 된다면 내가 주로 염려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이다 (52.9 / 31.1 / 32.9%)
 - (18-3) 내담자를 구하는 데 있어 상담자는 내담자 의뢰에 대한 소개료는 받지 않는다 (100.0 / 93.3 / 85.9%)
 - (32-2) 집단 상담과 관련하여 심리적 위험부담에 대한 나의 입장은 앞으로 집단원이 될 사람들을 면담에서 세심하게 거르면 된다

- (49.0 / 17.8 / 29.4%)
- (35-4) 내담자가 연구대상일 때 윤리적인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86.3 / 75.6 / 67.1%)
- (37-4) 인턴으로서 수퍼바이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하는 기관에 보고할 것이다. (14.1%)
- (38-3) 윤리적 상담자라 함은 주로 전문가의 윤리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 (49.0 / 28.9 / 27.1%)

성별차이에서 남자 상담자가 33명, 여자 상담자가 172명으로 여자 상담자가 단연 대다수인 상담계에서 남자 상담자가 상담분야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 반면 여자 상담자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적 성장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또한 아무래도 성 문제가 남자 상담자들에게 더 관련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성에 관계된 문항이 남자 상담자에게서 의미 있게 높은 빈도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가 있는 상담자, 상담심리전문가인 상담자, 상담경험이 10년 이상인 상담자, 수퍼비전을 40회 이상 받은 상담자들의 눈에 띄는 공통점은 상담자의 개인 특징은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다는 반응과 다른 상담자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상담자가 택해야 할 적절한 첫 단계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의심사항을 보고한다는 반응인데 이것은 상담계의 지도자들로서 상담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학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영이라 생각된다. 반면 수퍼비전을 2회 이상 실시한 상담자들이 상담자의 개인적 특징은 상담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한 것은 상담교육에 가장 깊게 관여한 상담계 지도자들로서 상담자의 인격이 상담의 도구를 수퍼비전을 통하여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심리전문가인 상담자, 상담경험이 10년 이상인 상담자, 수퍼비전을 21회 이상 실시한 상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턴으로 수퍼바이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하는 기관에 보고할 것이다 윤리적 상담자라 함은 주로 전문가의 윤리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을 피함을 의미한다고 반응하였는데 현장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개입하고자 하며 전문가의 윤리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반응이라 여겨진다.

상담심리전문가인 상담자와 상담경험이 10년 이상인 상담자가 제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적이지 않은 반응에서 서로가 좀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즉 상담심리전문가들의 반응 문항들은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많은데 비하여 상담경험이 10년 이상인 상담자들은 현장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반응들이 많다.

연구 2

상담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25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선택하게 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상황들은 최근 상담과 관련된 장면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갈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고 단편적이어서, 흑백으로 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6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윤리적, 비윤리적이라고 확실한 대답을 하였다.

표 3. 상담자의 윤리적/비윤리적 선택

		빈도	%	유효%	누적%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격진단 검사를 하였다. 신문사에서 결과를 취재하고자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알려 줌	윤리적	71	34.6	35.9	35.9
	비윤리적	127	62.0	64.1	100.0
	무응답	7	3.4		
2. 대학원 학생이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상담심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개인 상담을 받는다.	윤리적	135	65.9	67.8	67.8
	비윤리적	64	31.2	32.2	100.0
	무응답	6	2.9		
3.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 수퍼바이저에게 교육 상담을 받는다.	윤리적	156	76.1	79.6	79.6
	비윤리적	40	19.5	20.4	100.0
	무응답	9	4.4		
4.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받은 상담자가 첫 면담에서 심한 거식증 증세를 가진 내담자를 만나 받아들였다.	윤리적	51	24.9	25.8	25.8
	비윤리적	147	71.7	74.2	100.0
	무응답	7	3.4		
5. 나는 천주교 신자로 낙태를 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상담소는 낙태를 권하는 곳이라 낙태를 권하는 상담을 한다.	윤리적	81	39.5	41.8	41.8
	비윤리적	113	55.1	58.2	100.0
	무응답	11	5.4		
6. 남녀 차별에 대해 상담자는 사회가 그런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한다.	윤리적	51	24.9	26.4	26.4
	비윤리적	142	69.3	73.6	100.0
	무응답	12	5.9		
7. 방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상담자가 곧 수퍼비전 받을 상담자를 구한다.	윤리적	91	44.4	46.7	46.7
	비윤리적	104	50.7	53.3	100.0
	무응답	10	4.9		
8. 내담자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상담자에게 부담이 되어 이 문제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윤리적	22	10.7	10.9	10.9
	비윤리적	180	87.8	89.1	100.0
	무응답	3	1.5		
9. 한 기혼여성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가 우연히 그녀의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하며 부인에 대한 감정을 알고자 시도하였다.	윤리적	57	27.8	28.4	28.4
	비윤리적	144	70.2	71.6	100.0
	무응답	4	2.0		
10.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내담자를 받아들인다.	윤리적	42	20.5	21.4	21.4
	비윤리적	154	75.1	78.6	100.0
	무응답	9	4.4		
	전체	205	100.0		

표 3. 계속

		빈도	%	유효%	누적%
11. 무료상담을 진행하던 내담자가 다른 기관에서 유료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관의 상담자와 의논하여 상담을 종결	윤리적	122	59.5	62.2	62.2
	비윤리적	74	36.1	37.8	100.0
	무응답	9	4.4		
12. 적응 문제가 있는 같은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는 상담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고 상담 시작	윤리적	17	8.3	8.5	8.5
	비윤리적	182	88.8	91.5	100.0
	무응답	6	2.9		
13. 자살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 상담을 부탁 받고, 전문가 상담비를 낼 형편이 안 되어 초보자인 내가 상담함	윤리적	77	37.6	38.7	38.7
	비윤리적	122	59.5	61.3	100.0
	무응답	6	2.9		
14. 중학교 여학생을 상담 중인데 학생 어머니가 딸에 대한 기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였었다.	윤리적	20	9.8	10.1	10.1
	비윤리적	179	87.3	89.9	100.0
	무응답	6	2.9		
15. 자아성장 집단 상담에서 한 집단원이 심각한 개인문제를 드러내자 다른 집단원에게 더 이상 문제를 노출시키지 말라고 요구함	윤리적	41	20.0	21.0	21.0
	비윤리적	154	75.1	79.0	100.0
	무응답	10	4.9		
16. 상담연구소 개소 후 행정에만 전념하는 상담자를 그 기관의 주요 상담자라고 홍보함	윤리적	42	20.5	21.5	21.5
	비윤리적	153	74.6	78.5	100.0
	무응답	10	4.9		
17. 적성검사 결과, 문과와 이과 적성이 반반으로 나온 여학생에게 남학생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과를 제안함	윤리적	47	22.9	24.6	24.6
	비윤리적	144	70.2	75.4	100.0
	무응답	14	6.8		
18.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정원외 학생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이 학생이 대학에서 수업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	윤리적	104	50.7	54.2	54.2
	비윤리적	88	42.9	45.8	100.0
	무응답	13	6.3		
19. 상담을 1년 받은 적이 있는 내담자가 취직 후, 직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요청받고, 상담 사실을 밝히고 현재 적응문제가 없다고 씀	윤리적	89	43.4	46.4	46.4
	비윤리적	103	50.2	53.6	100.0
	무응답	13	6.3		
20. 10여 년 전에 상담한 내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내담자 동의 없이 학회 사례 발표를 하려고 한다.	윤리적	34	16.6	17.3	17.3
	비윤리적	163	79.5	82.7	100.0
	무응답	8	3.9		
		205	100.0		

표 3. 계속

		빈도	%	유효%	누적%
21. 문화 실조 환경에서 자란, 사회 생활 에티켓이 없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적응의 어려움을 학습 부재로 보고 일일이 가르친다.	윤리적	161	78.5	82.6	82.6
	비윤리적	34	16.6	17.4	100.0
	무응답	10	4.9		
22.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 레지던트, 인턴들이 함께 집단 상담을 하였다. 집단 상호작용이 지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리적	158	77.1	80.6	80.6
	비윤리적	38	18.5	19.4	100.0
	무응답	9	4.4		
23. 접수면접 후,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의뢰하였고, 내담자는 반복하기 싫다며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상담자는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	윤리적	37	18.0	19.1	19.1
	비윤리적	157	76.6	80.9	100.0
	무응답	11	5.4		
24. 내담자가 성폭행에 대한 기억을 하고 싶어 최선을 원하였고, 상담자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workshop에 참여한 적이 있어 시도하였다.	윤리적	28	13.7	13.9	13.9
	비윤리적	173	84.4	86.1	100.0
	무응답	4	2.0		
25. 동료상담자의 내담자가 상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상담자를 바꾸라는 제안으로 끝냈다.	윤리적	47	22.9	23.6	23.6
	비윤리적	152	74.1	76.4	100.0
	무응답	6	2.9		
	전체	205	100.0		

표 3에서 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선택이 상담자들의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알아 보았다. 문장 앞의 (11)은 질문지의 문항 번호이며 (41.5 / 18.8%)는 비교집단의 상담자가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빈도가 높다고 한 것은 χ^2 검증에서 $p < .01$ 인 경우만을 택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비교

여자 상담자가 남자 상담자에 비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은 문항

(11) 무료상담을 진행하던 내담자가 다른 기관에서 유료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관의 상담자와 의논하여 상담을 종결

(41.5 / 18.8%)

나이에 따른 비교

40대 이상의 상담자가 30대 혹은 20대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은 문항

(7) 방금 상담전문가 심사에 통과했으니 다른 상담자에게 수퍼비전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것이다. 곧 수퍼비전을 받을 상담자를 구한다 (69.2 / 50 / 41.5%)

학위에 따른 비교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자가 박사과정 혹은 석사를 가진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은 문항

- (4)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받은 상담자가 첫 면담에서 심한 거식증 증세를 가진 내담자를 만났다. 첫 사례인 만큼 꼭 내가 하겠다고 내담자를 받아들였다 (47.8 / 25.8 / 29.1%)
- (10) 상담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담심리 전문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아니라고 밝히기도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담자를 받아 들인다 (91.1 / 78.5 / 71.8%)

자격증에 따른 비교

상담심리 전문가가 상담심리사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많은 문항

- (3)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수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32.0 / 12.0%)
- (4)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받은 상담자가 첫 면담에서 심한 거식증 증세를 가진 내담자를 만났다. 첫 사례인 만큼 꼭 내가 하겠다고 내담자를 받아들였다 (82.9 / 67.9%)
- (7) 방금 상담전문가 심사에 통과했으니 다른 상담자에게 수퍼비전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것이다. 곧 수퍼비전을 받을 상담자를 구한다(65.8 / 44.2%)
- (15)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과정에서 한 집단원이 심각한 개인문제를 드러냈다. 이 집단원에게 나머지 집단 시간 동안에 더 이상 문제를 노출시키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요구를 했다 (86.3 / 72.6%)
- (22) 한 상담 기관에서 전문 상담원, 레지던트, 인턴들이 함께 집단 상담을 하였다.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앞으로 지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8.0 / 13.1%)

- (23) 인턴이 접수면접을 한 후 상담은 다른 상담자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내담자가 또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싫다며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인턴은 접수면접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해 주지 않았다 (88.0 / 75.3%)

상담경험에 따른 비교

10년 이상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4-9년 혹은 3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7) 방금 상담전문가 심사에 통과했으니 다른 상담자에게 수퍼비전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것이다. 곧 수퍼비전을 받을 상담자를 구한다 (67.9 / 52.6 / 41.7%)
- (23) 인턴이 접수면접을 한 후 상담은 다른 상담자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내담자가 또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싫다며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인턴은 접수면접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해 주지 않았다 (89.3 / 82.9 / 69.0%)

3년 이하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4-9년 혹은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격진단 검사를 했다. 신문사에서 결과를 취재하고자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알려 주었다 (71.9 / 66.7 / 51.8%)

4년-9년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10년 이상 혹은 3년 이하 경험을 가진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문항

- (11) 무료상담을 10여회 진행하던 중 내담자가 다른 기관에서 다른 상담자와 유료 상담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담자는 유료기관 상담자와 의논한 후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상담을 종결하였다(49.4 / 25.0 / 35.1%)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에 따른 비교

수퍼비전을 11회-40회 받은 상담자가 10회 이하 혹은 40회 이상 받은 상담자에 비해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항

-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격진단 검사를 했다. 신문사에서 결과를 취재하고자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알려 주었다 (76.9 / 64.0 / 55.4%)
- (9) 한 기혼여성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가 수영장에서 우연히 그 여성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상담자는 그 남편과의 몇 차례 대화를 통하여 부인에 대한 감정을 알고자 시도하였다 (79.1 / 58.8 / 72.6%)

수퍼비전을 실시한 경험에 따른 비교

수퍼비전을 21회 이상 실시한 상담자가 21회 이하 혹은 실시 경험이 없는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문항

- (3)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 수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36.0 / 15.9 / 13.6%)

수퍼비전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상담자가 20회 이상 혹은 20회 미만 실시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문항

- (18)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서 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정원 외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있다.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한국어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상담자는 이 학생이 대학에서 수업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55.7 / 43.8 / 33.3%)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갈등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라 흑백으로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 반응이 어느 쪽으로나 60%가 안 되는 문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자의 소견을 부연 하고자 한다.

문항 2와 문항 3에서 대학원 학생이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상담심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개인상담을 받거나,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 수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중관계에 관한 갈등으로 미국에서는 비윤리적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중관계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항 5에서 천주교 신자가 낙태를 권하는 기관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상담자 자신의 신념, 가치관, 철학이 다른 기관에서 일하면서 갈등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이 기관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7은 40대 이상의 상담자가 30대 혹은 20대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은 문항인데 40대의 상담자는 대부분 상담전문가이면서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라고 짐작되어 경험이 비교적 적으면서 상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30대나 자격증이 없는 20대 상담자가 자격증만 있으면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 한 것이다. 문항 7에서 10년 이상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4-9년 혹은 3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상담자보다 비윤리적이라는 빈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확인된다.

문항 11에서 내담자가 양쪽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두 상담자의 접근 방법이 달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내담자가 투명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문항 13에서 초보자가 자기 능력 이상의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 상담자가 수퍼비전을 받으면

서 상담을 해야 하리라 본다.

문항 18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정원의 학생의 한국어 사용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이 학생이 대학에서 수업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학생의 학습능력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수업능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런 경우 한국어 실력을 높이도록 도와주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나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문항 19에서는 모든 소견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에 근거하고 상담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써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상담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 론

상담이 삶의 한 양식이고, 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라는 입장에서 유능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인간적 특성이나 자질에 대하여 끝없는 토론이 가능하다. Corey(1991)가 제시한 유능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인간적 특성과 자질을 보면 Maslow의 자아실현한 인간의 특징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면 상담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아실현의 과제이며, 도(道) 닦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 및 자질을 배경으로 하고, 상담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철학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고 상담실제에서 생점이 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민감할 수 있도록 상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상담장면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상담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내담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생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동료와 토론을 통해 해답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상담관련 윤리지침이 없는 현재의 실정에서, 상담자는 전문분야의 최근 지식을 숙지하고, 솔직하게 자기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실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상담관계는 인간관계이므로, 주관적이고 문화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정도가 있다고 본다. 상담자 윤리에 대하여 자각하고 윤리문제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더 중요하다. 상담자 훈련에서도 윤리문제를 특별 관심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미숙함으로 변명의 여지를 주기보다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상담하려면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에서 적절하게 반응,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학회의 윤리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1의 각 문항분석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의 가치, 태도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상담전문가 상담경험이 많은 이들의 응답을 참고로 윤리지침의 토대로 삼을 수 있으리라 본다. 연구 2의 갈등 상황을 대학원 학생들의 토론과제로 사용하여 윤리 문제에 대한 의식 향상을 도모 할 수도 있겠다. 상담이 전문분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윤리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계현 (1997).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은희 (1991). 상담윤리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호 (1999). 상담심리학 (3판). 서울: 박영사.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1).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문사
- 이형득 편저 (1994).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ACA (1995). *Code of Ethics & Standards of Practice*. Alexandria, VA: Author.
- ACA (1999). *Ethical Standards for Internet On-line Counseling*. Alexandria, VA: Author.
- APA (2001).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Monitor on Psychology*, 32(2), 77-89.
- Agresti, A. A. (1992). Counselor training and ethical issues with older client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2(1), 43-50.
- Azar, B. (2000). Online experiments: ethically fair or foul. *Monitor on Psychology*, 31(4), 50-52.
- Burn, D. (1992). Ethical implications in cross-cultural counseling and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578-583.
- Chauvin, J. C. (1996).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unethical conduc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563-568.
- Cobia, D. C., & Boes, S. R. (2000). Professional disclosure statements and formal plans for supervision: two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ethical conflicts in post-masters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293-296.
- Corey, G. (1991/1998).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조현춘, 조현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77에 출판)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1998).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5th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otton, R. Rocco & Claus, R. E. (2000).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275-283.
- Erwin, W. J. (2000). Supervisor moral sensitiv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115-127.
- Gilbert, S. P. (1992). Ethical issues in the treatment of severe psychopathology in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695-699.
- Hammond, L. C. and Gantt, L. (1999). Using art in counseling : eth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 271-276.
- Haug, I. E. (1999). Boundaries and the use & misuse of power and authority: ethical complexities for clergy psycho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411-417.
- Heppner, P., Carter, J. A., Claiborn, C. D., Brooks, L., Gelso, C. J., Holloway, E. L., Stone, G. L., Wampold, B. E., & Galassi J. P.(1992). A proposal to integrate science & prac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20, 107-122.
- Herlihy, B., & Corey, G. (1966). *ACA ethical standards casebook*(5th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erlihy, B., & Corey, G.(1997). Boundary issues in counseling multip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 Alexandria, VA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erlihy, B., Healy, M., Cook, E. P., & Hudson, P. (1987). Ethical practices of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 A survey of state licensing board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27(1), 69-76.
- Herlihy, B., & Remley, T. R. Jr. (1995). Unified ethical standards: A challenge for professionalism.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130-133.
- Kurpius, D., Gibson, G., Lewis, J., & Corbet, M. (1991). Ethical issues in supervising counseling practitioner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1(1), 48-57.
- Lawrence, G., Kurpius, R., & Sharon E. (2000). Leg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when counseling minors in nonschool sett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2), 130-136.
- Neukrug, E. S., Healy, M., & Herlihy, B. (1992). Ethical practices of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 An undated survey of state licensing board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2(2), 130-141.
- Newman, J. L. (1993). Ethical Issues in Consult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148-156.
- Patrick, K. D. (1989). Unique Ethical Dilemmas in Counselor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28(4), 337-341.
- Perusse, R., Goodnough, G. E., & Noel, C. J. (2001). A National survey of school counselor preparation programs: screening methods, faculty experiences, curricular content, and fieldwork requirem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4), 252-262.
- Pope, K. S., & Vasquez, Melba J. T. (1991).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Pope, K. S., Tabachnick, B. G., & Keith-Spiegel, P. (1988). Good and poor practices in psychotherapy: National survey of beliefs of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 547-552.
- Salisbury, W. A., & Kinnier, R. T. (1996). Posttermination friendship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495-499.
- Schwiebert, V. L., Myers, J. E., & Dice, C. (2000). Ethical guidelines for counselors working with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123-129.
- Stanard, R., & Hazler, R. (1995). Leg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HIV and duty to warn for counselors: Does Tarasoff appl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97-400.
- Thorenson, R. W., Shaughnessy, P., Heppner, P. P., & Cook, S. W. (1993). Sexual contact during and after the professional relationship: attitudes and practices of male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429-439.
- Vacc, N. V., & Chorkow, W. B. (1999). Then and now: examining quality dimensions of counselor preparation program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9, 3-21
- Whiston, S., & Emerson, S. (1989). Ethical implications for supervisors in counseling of trainee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28(4), 318-325.
- 원 고 접 수 일 : 2002. 5.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 재 결 정 일 : 2002. 12. 3

A Study on Ethical Attitude of Korean Counselors

Hae-Rim Choi

General Education Division, Sogang University

Despite of the fact that ethics education is of great importance to counselors we have not yet any ethical codes or standards for Korean counselors. This study attempted to gain representative description of the ethical attitude of 205 Korean counselors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thical issues for Korean counselors. Study I includes 40 questions concerning beliefs, values, and attitudes of counseling and counseling profession. In Study II respondents were asked to make dichotomous ethical judgments of counselor behavior in 25 vignett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sex, age, degree level, certification,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supervision experience. To develop counseling as a profession Korean counselors are to work on the ethical codes and standards which are a vehicle for a professions identity, self-discipline and maturity.

Key Words : *counseling ethics, counselor attitude, Korean counselor*